

##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과 대응

강상우 사회복지 CoramDeo 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최근 개인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외부인을 통한 특강을 들었다. 교리(강사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와 이단 특강(이단 관련 사역을 하신 목사)에 대해서다. 교회 학생들을 포함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리로 무장을 해야 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리로 무장할 경우 그러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기 마련이다. 교리로의 무장(武裝)은 일종의 디폴트 값(default value, 기본값/默認值)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교리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이단에 대해서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단을 알고 그들을 분별하면 모든 것이 다(ALL) 해결되는 것일까? 그런데, 왜 교리로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목회자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성(性)이나 물질/金錢 등의 문제로 무너지는 사례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때로는 반기독교적 입장을 표하는 이들과 단체를 통해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일까? 이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신앙/교리교육을 통해 교육되고 있는데, 아니면 이단이 갖는 반사회적 성격과 그로 인한 반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서 경고/暴露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이단의 꾀임에 속는 것일까? 심지어 기성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들 집단에 빠져드는 것일까? 직분을 맡지 않거나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라고 하면 그래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또는 교리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장로와 권사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왜 이들 집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을 교리와 교리를 통한 무장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을 연구하는 이들은 밥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밥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지적이다. 성경도 밥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가정을 말한다(신 11:18, 엡 6:4).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자녀들을 적절히 양육하고 교육하도록 위임받았다.”(민화규, 2008: 311.)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최초의 교육기관은 가정이다.”(장동민, 2022: 284)<sup>2)</sup> 가정에서 밥상 교육이 잘 되면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여전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속된 말로 가정에서 잘 잡으면 탈선과 일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환경이 과거 부모 세대의 가정환경처럼 밥상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왜냐면 오늘날 대부분 가정은 맞벌이가 많은 것 같고, 부모들의 근무 환경도 과거처럼 낮에만 근로하는 이들이 감소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의 근로가 증가한 것 같기 때문이다[노동 유연성이라는 論理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단지 가정교육/밥상 교육뿐일까? 학교 교육만 잘 받으면, 아니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교회교육만 잘 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스마트폰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영향은 가정에서 밥상 교육만 잘 받으면 전혀 없는 것일까? 교회에서 신앙교육만 잘 되면 모든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만병통치약(panacea, cure-all)과 같은 것일까?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일까, 또래 집단일까, 아니면 스마트폰일까? 가정/밥상일까, 학교/학원일까, 아니면 SNS를 통한 영향일까?

시야를 돌려 교육이 아닌 학교 급식(學校給食)을 생각해 보자.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몸과 건강에 좋은 유기농으로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만 공급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유기농의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를 고를/선택할 수 있는 교육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학교 급식에서는 유기농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가 백퍼센트(100%, 백프로) 나오지 않을 것인데 말이다. 재정상으로도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백프로 유기농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는 불가능할 텐데 말이다. 아니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텐데 말이다. 급식에 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유기농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가 나올 것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100% 유기농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따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싸주면 먹을거리 안전성과 같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런 유기농 최고 품질의 먹을거리 도시락을 언제까지 싸주어야만 할까? 유치원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

---

2) “부교역자들은 학생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학부모(37%)를 꼽았다.”고 한다.(함영주·전병철·신승범·이현철·조철현, 2015: 24)

지속적으로 도시락을 싸줘야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건강식 도시락을 공급해야만 하는 것일까? 혹시 어린 자녀에게서 친구 등이 주는 불량식품이나 나쁜 음식에 가까운 주전부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을까? 사실상(de facto) 백프로 차단 말이다. 친구가 준 먹을거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도 안 좋은 과도한 설탕과 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된 음식(bad food)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 것일까? 좋은 음식(good food)은 이런 것이야 하며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再)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나쁜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혹시나 어린 자녀가 부모 몰래 친구들로부터 나쁜 식품을 얻어서 감추고 먹는다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는 괜한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sup>3)</sup>

교회학교 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모든 것은 교회학교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회/교회학교 선생님과 목회자(특히 담당교역자)와 가정/교회학교 학부모에게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무장-전신갑주(엡 6:11 이하)-시키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것 같다. 순진하게,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주일성수를 잘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거기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토핑(topping)을 하기도 한다. 물론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원론적(原論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디폴트값/기본값[默認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요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당사자인 교회학교 학생들과 그의 가정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차로 당사자인 학생 주변에 있는 교사/班師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신앙으로의 재무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교사의 소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교사들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이다.(최윤식, 2001; 박행님·윤수진, 2020; 류삼준, 2022; 김진영, 2023 참조)<sup>4)</sup> 교사로서 말은바 소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

3) 조금 결길로 가는 얘기지만, 급식에서 보편급식이 필요한 것은 부자집 자녀,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급식의 양질(良質)을 유지하는 데 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자녀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4) “교회학교 교사의 복음적 열정 상실을 그 원인으로 보면서 교사의 영성 회복과 영성 훈련, 사명감 고취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입장이 있다.”(최윤식, 2001).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의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1) 인식의 변화 및 연구 등에 힘쓰는 교회학교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2) 교사 개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사교육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 차원에서의, (3) 개

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공부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화/메시지를 전합니다. 참고로 토요일 밤에 연락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타 등등. 물론 이것도 매우 맞는 얘기다. 시쳇말로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말씀이다. 앞서 당사자인 교회학교 학생/가정에서 찾는 것보다는 확장된 진단이다. 이처럼 교회학교 위기를 해결/診斷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학생/가정⇒ 교사⇒ 교역자(목회자/사역자)⇒ 교회⇒ 노회⇒ 총회 등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그 문제 요인과 해결책 등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류상준, 2022; 라영환, 2020: 49-51. 참조<sup>5)</sup>) 그러나 문제는 교회학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것/環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교육 환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회 공동체 밖의 사회 구조적 환경이 교회학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도인 교회학교 학생의 부모들도 세상의 가치에 포획(捕獲, captivity)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상 가치는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침투된 세속적 가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가 강대상에서 설교나 간증, 신앙교육 등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분별력이 없거나 약한 성도들은 쉽게 그러한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별히 아멘(Amen, “아멘, 믿습니다.”)을 믿음/信仰의 강함의 지표로 생각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들은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교회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논의/熟考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적 구조(社會的構造/社會環境)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연구문제와 범위 그리고 한계

인과 개교회를 구조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단 및 공교회 차원에서의 실천 방향 및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류상준, 2022). 류상준 (2022).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의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고찰 및 제언”. 『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4(1). 1-23. 박행님·윤수진 (2020). “Q방법론을 활용한 교회학교 교사의 교회교육 위기에 관한 주관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6. 65-97. 최윤식 (2001).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진영 (2023). “교회교육에 대한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79. 439-463 참조.

- 5) 류상준(2022)은 개인, 개별 교회, 교단 및 공교회 차원에서 교회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는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간단하게 설정해 보았다. 연구문제: [教會學校 危機의 原因과 對應]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교회학교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으로 세상/세속적 가치가 교회에 유입되고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여 기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은 ‘내수용 그리스도인’(內需用 基督教人, Christians for Church Use/ Domestic-used Christian<sup>6)</sup>)을 양성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면역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문제를 위해서 연구자들의 기존 관련 선행연구들을 제한적으로 살펴보고-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riss.kr>)에서 검색어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검색하고 ‘결과내 재검색’에서 ‘위기’를 검색한 후에 얻은 자료들이다. 그리고 검색된 논문을 읽은 가운데 이들 논문의 연구자들이 인용한 논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첨가하는 식으로 전개했다. 일종의 브리콜라주(bricolage) 방식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냥마주이(a ragpicker) 방식이라고 해야할까요?-이들 선행연구의 연구자들의 주장에다가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과 주장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default value, 당연히 인정할 기본값)으로 가정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고(再考)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확장(擴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고

---

6)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양 극단(兩極端)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분이 ‘내수용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분의 공(功)이 인정되지만(功>過),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과(過)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功<過) 그래서 서로 다른 극단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영화, 「건국전쟁」(2024년)과 관련해서 자료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떠나 공과를 평가할 때에는 정확한 원자료(Raw Data)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https://youtu.be/IWvOJTv3Q1s>; <https://youtu.be/632sRpnvo8k>; 이는 일종의 ‘신앙/믿음 예외주의’(Faith excep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에는 믿음/기독교인이면 ‘다’(ALL)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인물의 평가에 신앙 예외주의-마치 미국 예외주의와 비슷하게-가 환원주의적 도식 안에서 작동한 것이다.

자 한다. 거기에 사회 구조적 측면/要因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에 나름의 확장 및 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팎의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本研究=先行研究 結果 受容+先行研究 結果 再考 및 擴張+社會 構造的 要因 添加]. 참고로 직접 인용하지 않는 자료들도 독자들의 참고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주로 처리하였다. 용어와 관련해서 교회학교(Church School)는 주일학교(Sunday School)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는 모이는 요일(Sunday, 主日/時間)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상대적으로 교회학교라는 단어는 이념과 장소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단어로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주일학교는 교회학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I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과 대응

### 1 기존 선행연구 살펴보기

지금의 현실은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유지를 넘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원인이 있고, 사회와 시대가 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문진영, 2023: 705)

먼저 코로나-19(COVID-19, 2019년 말) 사태를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주일학교 위기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연구들도 교회학교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조성국, 2011: 68; 고용수, 1997: 354 참조)는 점에서 교회학교 위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는 단지 교회학교 위기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환경을 제공했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지닌 심각성을 부각(浮刻)시키는 도화선(導火線)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2020; 김진영, 2023 참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학교가 지닌 위기의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문진영, 2023: 705-706)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의 90% 이상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sup>7)</sup>고 한다. 마찬가지로 작금의 출산을 저하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7) <http://v.daum.net/v/20240110161505985>; “한동대학교 VIC,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결실” <노컷뉴스>. (2024.01.10.);

할 것이다.(한미라, 2008; 조성국, 2011: 76-77; 김상구, 2012: 72; 전병철, 2016: 143)<sup>8)</sup> 참고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취학률 감소가 교회학교의 위기가 지닌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람들도 출산율이 낮다고 염려한다. 학생 수가 없는데 당연히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식의 논리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력비공같이 진단과 대책은 어디로 펼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들은 교회학교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연구 연도에 따라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나열하는 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진단이나 대안이 연구자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학교가 위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원인과 대응책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원인도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함영주 외, 2015: 3)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학교가 위기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대안 모색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박상진, 2009: 54)

사실 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뭐라 딱 꼬집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전병철, 2016: 143)

한춘기(1990)는 자신의 책,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에서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다섯 가

---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 윤광식, “2030년에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 비관 전망,” <한국기독일보> (2022.02.0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넘버즈』. 109. 2-1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세!” 『넘버즈』. 69. 2-10.

8)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전도와 양육의 활성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융합적인 노인복지 사역을 준비해야 하고, 주일학교 및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회의 가정 사역 강화,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 협력프로그램 강화, 1인 가구를 위한 방안 마련,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사역의 강화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스템적인 연합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형길, 2016) 김형길 (2016).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 경영연구』. 14. 191-210.

지로 지적한다. 첫째 비전, 곧 이상과 목적의 부재, 둘째 교육전문가의 부족 현상, 셋째 자료의 부족을, 넷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 지도자의 인식이 부족, 다섯째 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함을 지적하였다.(이정관, 2020: 84 재인용; 한춘기, 1990: 137-145)

고용수는 “한국 기독교교육의 위기와 과제”(1997)에서 기독교교육의 위기를 1. 정체성의 위기, 2. 교육구조의 위기, 3. 지도력의 위기(고용수, 1997: 345-359)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식 교육 구조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주일 교회학교의 문제점으로 (1) 훈련받은 전문교육지도자가 없는 학교운영체제 (2) 복음적인 열정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결여된 교사의 봉사, (3) 다중매체(multimedia)의 새바람에 끌려가는 신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매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교육 기재, (4) 교회학교 지원체제(목회구조와 가정 그리고 기독교 학교) 간의 협력 관계의 단절 현상 등이 교회학교의 감소율의 요인으로 크게 작동한다는 지적을 한다.(고용수, 1997: 354)

한미라는 “교회의 교사교육 실태와 성서적 대안.”(2008)에서 교회학교의 쇠퇴에 대해 사회적 영향으로 3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인구감소, 두 번째 요인은 인터넷, 세계화, 다문화 가정의 등장, 세 번째는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학교 안 가기 등 새로운 정책의 시행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출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미라, 2008: 277-283; 장신근, 2010: 232 재인용)

조용선은 “주말교회학교”(2008)에서 “1. 교회교육의 문제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조용선, 2008: 78-81) 1) 시간의 부족, 2) 결과 중심의 교회교육, 3) 고착화된 교육과정, 4) 주일 신자를 양성하는 교회학교, 5) 교회학교와 교회의 거리, 6)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7) 가정교육과의 거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5) 교회학교와 교회’와의 거리는 사역과 재정 등이 장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교회의 사역들은 장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만 있을 뿐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거의가 장년 중심이다.”(조용선, 2008: 80) ‘7) 가정교육과의 거리’는 가정과 교회의 연계성이 결여됨에 대한 지적이다. “부모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고,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조용선, 2008: 81)

박상진은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2009)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현상 가운데 교회학교의 위기를 빼놓을 수 없다. 교회학교

의 위기는 교회학교 학생 수의 격감이라는 양적인 현상(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7, 27-28)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교회교육의 무기력이라는 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신앙의 대잇기’의 위기와 기독교인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정체는 물론 대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 약화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상진, 2009: 54) 박상진은 계속해서 “IV.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 및 그 대안”(박상진, 2009: 70-79)과 관련해서는 1. 기독교교육 비전의 상실, 2. 기독교교육의 분리 현상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1) 교회와 가정의 분리, 2) 교회와 학교의 분리, 3) 가정과 학교의 분리 현상 등이 그것이다. 박상진은 기독교교육에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분리가 아닌 연계된 통전적인 기독교교육을 주장한다.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formation)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교육과 예배(worship)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인 교회교육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그 비전(vision)을 깨닫게 해 주는 학교교육간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신근은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대한 통전적인 접근-지휘자 이미지에 더하여”(2010)에서 교회학교의 교사교육과 직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장신근에 따르면 대안적 형태의 교사교육은 3가지에 상응하는 1) 전문성의 차원, 2) 영성적 차원, 3) 리더십의 차원을 균형적으로 두루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통전적인 형태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장신근, 2010: 233-234)

조성국은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2011)에서 “한국사회 차세대의 삶의 현실은, 저출산, 과잉교육, 대중문화로 특징지어지며, 이 모두는 신앙계층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교회 유치부와 주일학교에서 인원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조성국, 2011: 68)

김상구는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2012)라는 논문에서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어린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상구는 교회 정체성 위기를 교회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다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상구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 내부적 상황으로는 복음의 분명한 제시가 되지 못함을, 생동감 없는 예배, 그리고 어린이 예배전문가의 부재에서 찾는다. “첫째, 교회학교에서 복음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생동감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복음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한 예배는 역동적일 수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 셋째,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전문가가 부재하다.”(김상구, 2012: 69-71) 시대 외부적 상황으로는 저출산율, 여가문화의 확산, 그리고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들고 있다. “첫째, 인구학적 측면이 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학적 변수이다. ... 둘째, 여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셋째,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약화시킨다.”(김상구, 2012: 71-74) 김상구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어린이 예배 갱신을 위한 제안으로는 어린이 예배신학의 정립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다양한 예배 유형을 접목시킨 예배, 성인들과 함께 하는 통합예배를 들고 있다. “어린이 예배 갱신 방안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어린이 예배신학의 정립이 요청된다. ... 둘째,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 셋째, 다양한 예배 유형을 접목시키는 어린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 넷째,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함께하는 통합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김상구, 2012: 74-81)

함영주 외 등의 “한국 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2015)는 한국교회의 쇠퇴원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한 후에 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교회교육의 내부적 쇠퇴원인으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관심도의 부재, 부교역자의 전문성 부재, 교사의 교수-학습역량 부재를 꼽을 수 있다.”(함영주 외, 2015: 2). “자연적 감소 및 쇠퇴의 요인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을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요인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대체할만한 소비지향의 첨단문화의 대두로 인한 젊은 층의 이탈을 꼽을 수 있다.”(함영주 외, 2015: 3)

전병철은 양적 연구방법을 쓴 함영주 외 등(2015)의 논문과 관련해서 숫자로만 알 수 없는 행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의 내적인 요인 심층분석”(2016)을 시도한다. 전병철은 ‘3. 충격적인 발견들’에서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탈교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교회학교의 쇠퇴나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프로그램이나 교육철학의 부재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았다.”고 지적한다.(전병철, 2016: 151-152) 계속해서 “4. 무관심이 문제다: 말뿐인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전병철, 2016: 152-160)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세대만큼 가치 있는 사역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전병철, 2016: 154)

이정관은 자신의 논문 “21세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안”(2020)의 “Ⅲ. 2. 교회교육의 위기의 원인”에서 교회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이정관, 2020: 87-89) 교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그리고 목회자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청소년들이 교회학교를 떠나는 원인은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요인과 교회 밖에서의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회 내의 내적인 요인이다. (1) 교사의 문제로 전문적인 훈련된 교사가 없다. ... (2) 내적 요인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기능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 (3) 담임목사의 교회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교회 교육에 대한 비전 결핍으로 인한 교회교육에 예산 지원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4) 부모들의 교회에서 신앙교육과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5)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앙과 분리하고 신앙적인 것은 비 이성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영역만이 사실이며,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강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남짓한 교회교육으로 세속 교육이나 미디어 영향력을 이기고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확립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처럼 되었다.(오춘희, 2003) 이러한 요인들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요인들일 것이다.”(이정관, 2020: 87-88) 둘째는 교회 밖에서의 외적인 요인이다. “(1) 출산율의 저하다. ... (2)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기만족과 쾌락을 위한 오락문화와 여행문화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3)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 삶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 변화와 반기독교적 언론 및 매스컴의 악영향을 들을 수 있다. (4) 더 나아가 사교육의 증가와 더불어 미디어 발달로 인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 기기와 휴대전화 등 정보에 따른 대중 매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5) 공교육의 입시 위주의 학업과 대학진학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주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이정관, 2020: 88) 셋째는 목회자의 인식 부족이다. “목자가 교육목회에 대하여 이해와 앎 그리고 배움으로 교육목회 중심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전문적인 교육능력함양의 노력이 부족하다.”을 지적한다.(이정관, 2020: 88)

김정준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2021)이라는 논문에서 주일학교 위기를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인 근대 보편주의의 해체,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의 해체, 거대담론의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 등의 영향, 둘째,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시대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반대로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셋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에 따른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제약.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의 상실과 교육 열 감소 현상을 지적한다.(김정준, 2021: 11; 17-25)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제시했다. 첫째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화된 포스트모던 시대에 절대적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는 교사의 필요성, 둘째 젊은 세대의 인구감소로 인구절벽 시대에 가정 친화적인 주일학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셋째 워드 코로나 사태에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활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andment, 마 28:18-20)’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비전과 열정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준, 2021: 11-12, 25-35)

장동민은 “대한민국 기독교교육과 공교육, 과거에서 길을 찾다”(2022)에서 ‘6. 신앙교육

기관으로서의 교회학교의 발전과 쇠퇴’(장동민, 2022: 271-275)에서 교회학교 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교회학교 하락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으므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 우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 둘째 오래전부터 대학입시는 교회학교 인구감소의 주원인이었다. 종교적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청소년 시절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어야 한다. 심지어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들도 자녀 문제에서만은 세속적 가치를 따랐다. 셋째 90년대 대중문화 전성기를 맞아 대중문화를 선도하던 주일학교의 기능이 사라졌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콘서트문화 PC통신과 인터넷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게임 등이 청소년의 마음을 빼앗았다. 또한 이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학교가 주최하는 수련회나 캠프가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서울올림픽의 개최로 국력이 높아지고 1990년대 3저(低) 호황기를 맞아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 아마도 젊은이들의 세속화와 탈종교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장동민, 2022: 274-275)

이정관은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위기와 기독교교육 전문가의 필요성”(2023)에서 “교회학교 교육 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교회가 교육전문가(Christian education experts)를 활용한 교회 성장과 교회학교의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정관, 202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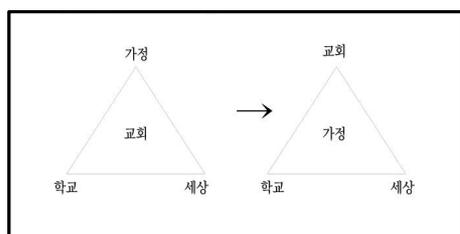
## 2. 선행연구 재고 및 확장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

### 1) 교회학교 위기 관련 영역 확장과 각 영역 간의 연계 중요성에 주목하기

선행연구를 보면 교회/주일학교의 위기에 대한 원인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 공동체 그것도 교회학교 내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교회 프로그램(권진하, 2023 참조)이나 지도 교육자의 자질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의 소명감 등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이 확장되어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어 진다. 가정사역(Family Ministry)<sup>9)</sup>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시작한다.(전병철, 2016; 163; 문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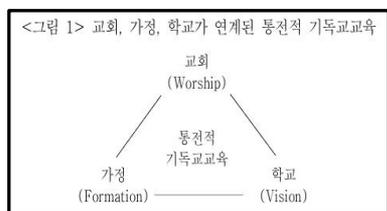
9) “기존의 유치등부나 중고등부의 목회가 그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다고 진단한다.(Jones 2011: 45)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한 목회에 참여하는가? 얼마나 자녀의 영적 성장에

2023: 707-710 참조) 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의 예배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손을 내밀게 된다.(Family Equipping Model)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부모들도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민화규, 2008 참조) 교회와 가정과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 그것만으로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로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학교(公教育)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학교보다는 학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공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교와 더불어 사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단순히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生態界的 觀點, the ecological perspective)



“교회는 가정과 학교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는 약하다. 오히려 가정이 중심이 되면,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와 세상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가 아닌 가정이 책임져야 하며, 교회학교는 가정이 온전하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나름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전병철, 2016: 163. <그림>은 전병철, 2016: 163)

박상진은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통전적 기독교교육’을 강조한다.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극복은 신앙공동체를 강조하거나 교육목회로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교육이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연계됨으로써 통전적인 기독교교육을 구현할 때만이 가능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고 통합되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실천됨으로 좁은 의미의 신앙성숙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박상진, 2009: 79-80, <그림>은 박상진, 2009: 76)<sup>10)</sup>

관심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정목회(Family Ministry)로 목회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문진영, 2023: 705) Jones, Timothy Paul (2011). Family Ministry Field Guide: How Your Church can Equip Parents to Make Disciples. Fishers, IN: Wesleyan Publishing House.

10) “라영환은 변화된 세계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가정, 교회, 학교의 세 기관이 반드시 협력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자녀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

## 2)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교회학교 교육문제 바라보기의 필요성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응을 위해 연구자들의 시선의 확장은 매우 고무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교회/교회학교-가정-학교/학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고등학생이 되거나 고3이 되면서 교회학교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가 바로 대학입시(大學入試)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장동민, 2022 참조)<sup>11)</sup> 교육의 문제-과잉교육/입시 위주의 사교육-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조성국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가족의 잠정적 해체), 아파트값 인상, 심지어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12)</sup>

“교육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자녀교육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중심의 관심을 앞선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자녀의 학습문제를 넘어 부모의 문제여서 교육문제는 주거지 선택의 주된 요인이 되어 아파트의 값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잠정적 해체를 정당화하여 기러기 가족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가정의 가장 큰 지출요소 중의 하나이다.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사교육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지면,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성국, 2011: 79)

---

시대 이후, 특히 개혁파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영환, 2020: 49-51; 장동민, 2022: 284, 31번 각주). 라영환 (2020). “4차 산업혁명과 개혁주의생명신학: 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과말씀』. 26(1). 43-68.

- 11) 김정환은 주일학교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진화론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 때문이 아닐까요?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입시준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예 주일예배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정환·우중학, 2015: 14).
- 12)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 수와 같은 지역 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 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사연, 2019, <국문초록>) 박사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5(1). 59-72.

교육의 문제가 교회학교 위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원인의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도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이라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누군가의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 예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었다고 한다.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지역 교회들은 자원봉사자를 결성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을 원조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 지역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는 그곳의 도로가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란단. 만약 도로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후(事後)에라도 알게 되었다면 지역 교회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자원봉사로만 만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달에 몇 건의 교통사고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러한 봉사를 했습니다로 만족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환자들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 것은 맞다. 마땅히 그러한 봉사의 사역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역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도로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잘못된 도로의 구조에 대해서 안전한 도로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도로가 있는 한 교통사고는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사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교통사고의 환자들을 원조할 수 있는 봉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의 위기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나 과잉 입시제도로 온 것이라면 그러한 원인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 기저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카데미한 논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사고실험이라고 말해야 할까? 과거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 때에는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실 분이 계신다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에는 즐거웠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즐거웠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시절은 너무나 어려서 사고/自我가 형성되지 않아서 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즐거웠을까?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렇다. 공부를 못해도 즐거운 다른 시간이 많이 있었다. 국어나 수학/산수를-지금은 영어도 포함될 것이다-못해도 다른 즐거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즐거웠던 것 아닌가? 체육 시간에는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이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달리기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줄넘기를 잘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남자라면 군생활을 기억해 보라. 군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음악 시간에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주목을 받았다.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농번기(農繁期) 때에는 대민봉사를 나갔다. 보리를 베러. 모내기를 나갔다. 그때에는 누가 눈에 띌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낫을 잘 다루는 아이가 눈에 들어온다. 선생님도 낫질을 잘하는 친구를 칭찬한다. 모내기를 잘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실과(實科)라는 과목의 시간이 있어서 바느질을 배웠다. 바느질-공구르기네, 감침질이네 등등-을 잘하는 친구가 그 시간에는 최고다.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서 시범을 시키기라도 하면 선생님께서 호명한 그 친구를 그 시간만큼은 전교일등(全校一等)도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국·영·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목 단위제가 아니어서 국영수를 못해도 다른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하면 되고, 미술이나, 체육, 한문 등의 과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영수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등수(等數)는 평균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영수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가? 단위제다. 국영수 위주의 단위제다. 인문계에 입학하면 국영수 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은 극에 달하게 된다. 왜 그리 국영수 수업이 많은지? 그래서 국어는 우리말이라도 하니 좀 부담은 덜하지만, 영어와 수학 수업은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시간이다.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영어 해석을 시켰고(의무적으로), 칠판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義務的으로) 만약 틀리기만 하면 회초리(매)가 기다렸으니 얼마나 지겨운 시간이었을까? 지금은 문제를 못 풀다고 해서 체벌(體罰)은 하지 않는다. 재미는 없고 지루하니 애들이 영수시간에 잠자거나, 다른 해찰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 예의가 없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경험에 비추어 안 보아도 비디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자. 국·영·수(國·英·數)가 그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회에서 “국·영·수 성적=학생 성적=명문대 입학 조건=좋은 직장의 취직조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들만으로 원활하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평가=국영수라는 극단적 과목 환원주의”라는 도식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고/介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영수가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많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교회학교 성장은 교회/기독교의 공신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한국리서치의 ‘2022 종교인식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호감도는 불교(47.1점)나 천주교(45.2점) 보다도 낮은 31.4점에 불과했다.<sup>13)</sup>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13) <http://v.daum.net/v/20221208030310106>; 박지훈, “‘개신교 긍정적’ 20% 그쳐..

49%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와 교회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여준다.(권진하, 2023: 744)

교회학교의 부흥은 더 큰 영역에서는 기독교의 공신력과도 연동(聯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관계를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신력에 대한 감소는 사회와 교회와의 사이의 장벽을 세울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신력의 저하는 교회교육의 위기의 원인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신력과 부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원인은 교회학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교회 스스로가 자처한 것으로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영력이 약화 되었다. 더불어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 학습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교회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목회자들은 교회학교 교육보다 성인 중심의 목회에만 치중하고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한 결과로서 교회교육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자초하였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더 커진 것은, 교회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이정관, 2020: 86; 김상구, 2012: 69-71 참조)

이정관의 지적처럼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교회학교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학교의 부흥을 원한다면 기독교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세대를 다음세대!”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다. 예배시간에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ALL)가 아니다. 다음세대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공신력이라는 위대한 유산(遺産, heritage)을 상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적 공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있기까지는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사회적 공신력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이루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과거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오해로 인한 것이었다. 예배당(禮拜堂)을 연애당(戀愛堂)으로 불리워진 것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분리/차별되어 진 사회 분위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위해 상대적으로 남녀 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평가라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에는 분명 부러운 점도 있었을

---

신뢰 회복 급하다.” <국민일보>. (2022.12.08.).

것이다. 왜냐하면 부러움(e.g. envy, jealousy)이라는 단어에는 시기와 질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의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오해와 시기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말하기가 그렇지만-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 같아[仰天而唾]-개독교네, 먹사네, 실망해(信·望·愛), 전도사(錢道師)네, 성도(性徒)네 하는 부정적 신조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on-line, off-line)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과거처럼 오해와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나 SNS를 접한 이들의 평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공동체의 공신력이 저하되었을까? 교회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에 대한 진단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고용수(1997)는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교회교육의 길들임(domestication)으로 전락(轉落)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길들임’이란 교회의 교육적 노력을 단지 교인을 모으고, 교인을 제도적 교회에 충성하도록 교육하는 일에만 치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와 사회의 윤리, 도덕 문제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교육은 개인의 의식구조 측면에서도 하나의 분리 경험을 형성케 했다. 즉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과 공적 사회생활(public life) 사이의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게 만들었다.”(고용수, 1997: 348) 길들임의 교육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교육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내수용(內需用)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함으로써 공공성과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회교육과 관련해서 내수용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전염성을 가진 대외용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가 말한 바와 같이 ‘젊은이들을 건물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도취와 이기주의를 강화’할 종교상품으로 그들을 소비자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성 있는 제자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유은희, 2020: 323 재인용)

### 3.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세상 가치의 유입

교회교육/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릭 루소와 에릭 스완슨(Rick Rusaw and Eric Swanson)은 담임 목사를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교회에서 사역을 정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십중팔구 목사이기 쉽다. 당신이 만일 담임 목사라면 사역을 정의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Rusaw and Swanson, 2008: 121-122; 강상우, 2017: 2, 4번 각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담임 목사의 복지 마인드(welfare mind)가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예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조사 연구’에서 밝힌 대로 교회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62.8%가 목회자에 의해서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1.3%에 불과하였다.”(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136; 강상우, 2017: 2, 4번 각주). 교회학교와 관련해서도 담임목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함영주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회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응답자의 28.7%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의 부재 혹은 결여로 봤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함영주 외, 2015: 9)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향력(강력하지만)이 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부(副) 교역자들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목회자들에게 주의 종/하나님의 종, 특히 담임 목사의 경우 당회장이라는 명칭 등에서 목회자들의 교회에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들의 영향력이 강한데, 이들이 특히 강대상에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는 발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유명 배우나, 장로나 간증하는 자들—강대상에서 간증할 경우 그 내용이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의 종(목회자)인데 무슨 틀린 말을 하겠어? 목사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강대상에 세울 정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 영적 분별에 대한 무장을 해제할 확률이 높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나 특정인의 간증 내용을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수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설교나 강대상에서 교육이나 간증을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 즉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무장해제된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나 간증과 교육을 하는 이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세속적 가치들 가운데 주일학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설교와 간증 등을 통한 번영신학/복음(繁榮神學/繁榮福音, the Prosperity Theology or Prosperity Gospel)<sup>14</sup>이나 성공주의(成功主義)의 유입과 더불어 설교와 교육

---

14) “미국의 대형교회를 통해 번영신학은 한국 교회와 사역은 물론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성장운동,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 맘몬주의, 비성경적

을 통한 복음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of the Gospel, [信仰의 個人主義化])<sup>15)</sup>가 그것이다.

1) 교회 공동체 안으로 변영신학과 성공주의 유입(김영한, 2009: 7-11, “3. 한국교회의 변영주의 및 성공주의” 참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 세속적 가치(世俗的價値)가 교회 공동체로 유입되게 되고 그 세속적 가치에 포획(捕獲)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입된 세속적 가치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속적 가치를 재생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고착/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에 유입된 세속적 가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상(偶像, Idol)<sup>16)</sup>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가 우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상으로 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재물(財物, μαμωνᾶς, Mamōnas)이었다.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의 대항마로서 재물인 mammon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는 mammon/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개역개정> [You cannot serve Hashem and Mammon (Money). <OJB>,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NIV>,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KJV>, οὐ δύνασθε θεῷ δουλεῦεν καὶ μαμωνᾶ. <SBLGNT>] [ ]은 본연구자 첨가)

---

인 기복신앙, 치유사역 등은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변영신학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류장현, 2010) 류장현 (2010). “변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61. 7-30.

- 15) 설교의 사사화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지찬 (2013).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의 심리화(心理化)–사사화(私事化)와 적용의 정형화(定型化)”. 『성경과 신학』. 67. 261-290.; “최근 한국교회의 설교가 기독교적인 복음 선포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변영신학이나 기복사상이 깔린 메시지들을 보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이승진, 2013: 37). 이승진 (2013).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67. 31-73.
- 16) “현대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우상의 힘을 가지는가. 이데올로기는 ‘절대화’, ‘현실 왜곡’, ‘욕망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작용을 통해서 유사종교적 기능을 발휘한다.”(윤형철, 2020: 187), 즉 상대적인 것의 절대화, 현실 인식의 왜곡, 그릇된 욕망의 형성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경계하신 물질에 대한 세속적 가치가 교회 공동체로 유입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강한 자라고 평가 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이다. 과거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 시댁의 핍박이 심해졌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랬더니 핍박하던 시댁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예화가 아니라. 오늘날의 설교 예화는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좋은 대학에 갔다. 연봉이 많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것들이 대부분의 설교 예화가 되었고 간증의 주제가 된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자주 말하거나 간증해왔던 주장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또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들이었다.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는 실지로 예수를 믿은 뒤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공헌배, 2021: 6)

박득훈의 명쾌한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근본주의적 개신교는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친다. 또한 그러므로 재물을 버리고 신을 섬기라고 요구한다. 그러고는 결론적으로,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파한다”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는 탈세속성의 가면을 쓴 세속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sup>17)</sup>(신익상, 2018: 53-54; 박득훈, 2008: 39-43 참조)

신앙이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이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김영한, 2009: 4)

이러한 설교 예화와 간증은 설교와 간증을 듣는 성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신앙/믿음=성공:출세/좋은 대학:좋은 직장/높은 연봉:부자.”라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 점이다. ‘좋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학생=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성공한 사람=현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도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부모이든 학생이든 간에 상관없이 길게는 3년 또는 짧게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특히, 고등학생 기간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성공하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

---

17) 박득훈 (2008). “한국교회, 자본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되어야-자본주의에 포획된 한국교회의 증상 진단과 처방”. 『기독교사상』. 52(1). 32-57.; “국가 총동원체제의 ‘잘살아보세’ 기치는 ‘예수 믿고 만사형통’으로 번안되어, ‘삼박자구원론’으로 수렴되었다.”(이숙진, 2018: 84).

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 차후에 성공해서 잃어버린 그 시간을 보상받을/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특히 고3 동안에는 입시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데 아무런 가책이나 망설임 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은 물론 심지어 그 믿는 부모들조차도 말이다. 한마디로, 현실의 삶 속에서 ‘주(主)바라기’가 아닌 ‘복(福)바라기, 돈(錢)바라기, 성공(成功)바라기’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과 진배없이 삶 속에서 평등사회(平等社會)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평수(坪數)와 자녀의 등급(等級)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말이다. 오늘날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사회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세상의 논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밥그릇(일자리)이 적다. 그러니 밥그릇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밥그릇이 적으니 적은 밥그릇을 나눠 먹도록 해라도 아니다.”

밥그릇이 적어,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적은 밥그릇이라도 네가 차지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적은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더 죽도록 공부(工夫)해라는 식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다.

## 2) 설교와 교육 등을 통한 복음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the Gospel)

목회자들이 설교의 사사화를 시도한다(privatization of preaching). 공적 영역에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앞서 고용수 교수가 지적한 교회교육의 ‘길들임’(domestication)을 통해서 내수용 기독교인으로 만듦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에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개인만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치부(置籒)하여 ‘나/내 가족/내 교회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돼’라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름의 아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학부모들은 대안학교를 보낸다.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비인가이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현실의 교육환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sup>18)</sup>은 현실로 회귀해야

18) “...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과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많다. 학교 폭력이나 술·담배 문제가 없는 교육환경 개선에 만족할 뿐 기독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학교들이 많다. 혹은 서구의 교육단체들과 연계하여 해외 유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컬트와 같은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침에 응답하는 자

만 한다. 장동민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입시 제도라는 현실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대학입시 제도가 중등학교의 교육을 규정하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 교과과정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장동민, 2022: 244) 앞서 지적했듯이, 교회학교의 위기는 단순히 교회학교/교회나 가정 더 나아가 학교(공교육)/학원(사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의 위기도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과거 기독교인들의 군대 생활을 생각해 보라. 과거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교지(宣敎地)에 가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다. 군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곳이었다. 당시에는 군이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세상의 악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지인들의 입에서 나온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르노를 처음 본 곳이 군대인 사람도 있고, 불법적인 성매매 같은 행위가 남자다움[마초/macho]으로 추앙받는 곳이었고, 군대라는 곳은 구타를 당하는 곳이기도 했고 구타를 행한 곳이기도 했다.(참고로 우스갯소리로 군대는 구타가 없다고 한다. 왜냐면 군대에서 한번 맞으면 구타(九打), 즉 아홉 대 맞는 것이 아니라, 개 패듯이 죽도록 맞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는 형제(자녀)가 걱정되어서 날마다 조바심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군대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만 군대에 가는 형제(자녀)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인 다른 많은 장병들도 군대 생활이 즐거워야 할 것이 아닌가!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교육의 강화를 얘기한다. 교리로 전신무장을 하길 원한다. 교리로 전신무장한 자녀들이 군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시쳇말로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리로 전신무장한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원상복귀/복구(原狀復歸/原狀復舊)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마치 여성 바디빌딩 선수들에게 있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가 남성 바디빌더에 비해 매우 두드러지게 반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바디빌더는 3mg 남성호르몬을 주당 사용한다고 한다. 그 용량은 남성 사용량과 비교할 때에 100분의 1 이하의 극소량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극소량의 남성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면 여성의 몸은 압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탁터 테스트스테론(Dr. Testosterone)으로 알려진 조지 툴리아토스 박사는 이런 설명을 한다. “여성들

---

아를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철학과 규율에 절대복종하는 수동적인 맹신자를 키우게 된다.”(장동민, 2022: 244, 4번 각주)

은 에스트로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안드로겐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여성은 본래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많아요. 그렇죠? 약물로 이 환경을 바꾼다면, 그 즉시 그들(여자 바디빌더)에게 합리적인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요.”<sup>19)</sup>

교리적으로 전신 갑주로 무장된 성도라고 하더라도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유혹을 잘 극복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理想), 만약 무너지게 되면 급속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전신 갑주(全身甲冑, 엡 6:13; the whole armour, <KJV>, the full armor, <NIV>,  $\pi \alpha \nu \omicron \pi \lambda \acute{\iota} \alpha$ , panoplia)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유혹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 Ⅲ 나아가는 말

선행 연구자들에 의한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다. 다만 코로나 사태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이들 문제가 지닌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학교의 위기가 교회학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학교라는 제한된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 공교육의 장인 학교와 사교육의 장인 학원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의 문제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심지어 공교육 체제가 지닌 문제나 사회환경이 지닌 문제들까지 바라보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디플트값(基本값)으로 수용하면서,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재고와 확장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 구조적 측면에 대해 살펴볼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본고는 교회학교 위기 관련 영역 확장과 각 영역 간의 연계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학교의 위기가 교회와 기독교의 공신력(Public trust)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던 것이다. 교회학교의 위기의 원인 중에 무엇보다도 교회 안으로 세속적 가치(secular values)의 유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간증이나 설교나 교육 등을 통해서 세상 가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변영신학과 성공주의의 유입과 더불어 설교와 교육 등을 통한 복음의 사사화가 이루

---

19) <https://youtu.be/KMStOW0g0Gc>; <바디 알케미>, “그녀가 사용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공개합니다.”

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복음의 사사화는 신앙을 개인 수준에 가두게 됨으로써 사회 구조적 측면과 장벽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내수용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내수용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용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질 확률을 높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 위기/誘惑에 빠지면 스스로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교리로의 무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우 (2017).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 관한 소고: 성경, 교회사 그리고 현 지교회 사례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 (통권 24호). 1-31.(다운받은 pdf 페이지 수다)
- 고용수 (1997) “한국기독교교육의 위기와 과제”. 『장신논단』. 13. 376-394.
- 공헌배 (2021).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 연구”. 『한국학연구』. 76. 5-34.
- 권진하 (2023). “교회학교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시스템 설계 및 적용’-청량 교회교육디렉팅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84. 725-757.
- 김상구 (2012).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성경과 신학』. 63. 55-88.
- 김영한 (2009). “‘영광 신학의 설교와 십자가 신학의 설교’- 오늘날 변영주의 설교 비판”. 『한국개혁신학』. 26. 8-38.(다운받은 pdf. 3-22이다. 다운받은 pdf 페이지 수를 인용했다).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 김정한·우종학 (2015). “과학과 신학, 어제와 오늘: 김정한 교수에게 듣다”. 『월드뷰』. 181. 6-17.
- 김진영 (2023). “교회교육에 대한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79. 439-463.
- 류삼준 (2022).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의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고찰 및 제언”.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4(1). 1-23.
- 문진영 (2023).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애굽기 12-13장 연구와 Family Ministry 사례분석.” 『신학과 실천』. 86. 703-725.
- 민화규 (2008). “초·중등학교에서 기독교인 학부모에 의한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16. 309-350.
-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 신익상 (2018). “한국의 개신교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개신교 내 ‘돈’과 가난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연구”. 최현종 외 6인 공저 (2018). 『‘돈’과 종교 II』. 서울: 동연. 47-82.
- 유은희 (2020). “코로나 19 상황과 교회”. 『총신대논총』. 40. 297-325.
- 윤형철 (2020). “우상의 또 다른 얼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의 이상화와 이상적 기능에 대한 비판”. 『생명과말씀』. 28(3). 175-207.
- 이숙진 (2018).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신교의 돈의 친연성: 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최현종 외 6인 공저 (2018). 『‘돈’과 종교 II: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 동연. 83-114.
- 이정관 (2023).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위기와 기독교교육 전문가의 필요성”. 『기독교교육논총』. 76. 51-71.
- 이정관 (2020). “21세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63.4. 81-107.
- 장동민 (2022). “대한민국 기독교교육과 공교육, 과거에서 길을 찾다”. 『생명과말씀』. 34. 236-302.
- 장신근 (2010).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대한 통전적인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24. 219-255.
- 조성국 (2011).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고신신학』. 13. 67-97.
- 조용선 (2008). “주말교회 학교”. 『기독교교육논총』. 17. 75-100.
- 최현종 외 6인 공저 (2018). 『‘돈’과 종교 II: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 동연.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한국교회 사회봉사 사업 조사연구』. 서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원.
- 한미라 (2008). “교회의 교사교육 실태와 성서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21. 275-314.
- 한춘기 (1990). 『한국교회와 교회교육』.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함영주·전병철·신승범·이현철·조철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 Rusaw, Rick and Eric Swanson (2004). The Externally Focused Church. Group Publishing Inc. 김용환 역 (2008).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